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2월 28일(금)

(윤력 2월 1일)

Пятница

28 февраля 2025 г.

№ 8 (1212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마슬레니차 주간이 펼쳐진다. 마슬레니차 축제는 겨울을 전송하는 것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웅〉
프로그램에 특수군사작전 참전자
200명 이상 참가등록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웅〉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자들을 위한 지역 인재 프로그램 시작 이후 첫 5일간 플랫폼에 207명의 참전용사들이 등록했다. 이 기획에는 전역한 참전자들과 아직 복무 중인 참전병사들이 참가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정부 측이 전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웅〉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국가적 기관에서의 기본 업무를 익힐 수 있으며, 수업은 사할린국립대학과 지역 관리학교를 거점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복무를 마친 참전자들에게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들에서 '군사 훈련'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중등직업교육을 마친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은 사할린 고용 및 노동청으로부터 구직과 경력 개발에 개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 24일까지 희망자는 등록할 수 있고, 전 교육과정 시작은 6월 23일부터이며, 자세한 정보는 프로젝트 게로이 65(проект герои65.рф.) 공식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사할린의 참전용사들과 1급 장애인들에게 신선한 나와가 1톤 배급

2월 24일 대조국전쟁의 참전용사들과 1급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나와가 1톤을 배급했다.

이 자선행사는 수산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수산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신선한 나와가 포장과 배송은 개인 사업자인 예피모브가 담당했고, 이 기업의 직원들은 나와가를 적정량 배급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

데 서로 나와가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에서는 이러한 생선 나눔 자선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활동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할린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생선'연중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사할린의 교사들, 왕따, 가족의 가치에 대한 영상 제작

2025년 사할린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해 제작하는 영화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영화에는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단편영화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세작전에 대한 다큐 영상,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일련의 만화영화가 포함돼 있다.

추진되는 창작활동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기획 〈교사들을 위한 창조산업〉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지원 속에 시행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 기획을 논의하기 위해 〈영화와 애니메이션〉창조산업 분야의 교사들

과 함께 전략적 교육 및 토론 일정이 진행된 가운데 주지사가 토론의 진행자가 되었다.

주지사의 전략기획 〈교사들을 위한 창조산업〉은 2025년에 사할린에서 시작되어 영화, 만화영화, 사진, 언론, IT, 비디오게임, 예술산업, 연극예술, 언어 장르 연극, 공연예술과 장식예술-응용예술 등 이 방면의 창의적인 교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 추진은 사할린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료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하는 학교'기획 시행과 병행해 도입되고 있다.

사할린, 수산양식 생해산물 수출 최초 준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 생산품의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과 회동한 가운데 자사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준비 중인 기업의 대표들이 개발 계획을 주지사에게 설명하고,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몇몇 사할린의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을 이미 점거하고 있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지위야-파름 사할린' 회사는 처음으로 중국과 다시마 분말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해조류 가공에 따른 세계 첨단기술이 있다. 연방 식품, 생명공학, 식품안전 과학연구센터는 우리의 다시마 분말의 생체이용률이 93%에 달한다고 인증했다.

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이런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3년에 우리는 하얼빈에 첫 제품을 공급했고, 우리의 식품은 중국에서 우선순위의 자리에 올랐으며, 2024년에는 다시마 분말 15톤에 대한 공급을 체결했다. 우리 식품은 유기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어 몸속을 정화하고, 무수한 질병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지위야-파름 사할린'회사 워토르 아웨린 회장이 설명했다.

치료용 분말의 원료인 '라미나리아 자포니아' 해초는 세계 매장량의 80%가 사할린에서 자라고 있다고 회장이 덧붙여 말했다. 이에 주지사는 원료의 본거지와 고유한 기술, 이는 러시아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생산 확대를 위한 절

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정부는 사할린의 '크바스'와 '크라스니카(클로포브카)' 생산으로 유명한 '세웨르나야 즈웨즈다' 회사도 최소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도록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세웨르나야 즈웨즈다'회사의 탁월성은 바로 생산기술이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귀사 음료의 품질은 더할 나위없이 탁월하다. 코카콜라가 러시아 틈새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귀사 제품의 생산력 증대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협력자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귀사의 음료는 코카콜라보다 낮기 때문이다. 우리는 협상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 향후 전망하기로는 사할린의 크와스와 크라스니카(클로포브카) 음료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해양 선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운송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아시아인포' 회사는 양식 생가리비를 중국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냉동해산물만이 수출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사할린주 수산양식 생가리비 수출을 첫 경험한다. '아시아인포' 회사의 워토르 베레즈노브 사장은 "우리 회사는 코르사코브 지역 페르외야 파지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해산물들은 해삼, 소라, 가리비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수산양식 생해산물 수출 최초 준비

(1편의 계속)

2020년에는 양식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가리비와 해삼을 양식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첫 가리비 수확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중국에 수출 품목들을 받는 단계에 있으며, 올해는 하얼빈과 뻬이징으로 생 해산물들을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산양식의 생해산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기지 건설을 시작했으며 이 기지 건설은 해양 양식업자에게는 자연적 조건이나 항해에 의존하지 않고 일년 내내 생해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전하고, 코르사코브 지역에 추가 전력량 구축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수산양식을 우리는 매우 유망하고, 자본 집약적인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경제개발부에서 이 방면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돕도록 요청하겠다.

이런 기업을 위한 제반시설 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때에 해결되어야 한다."며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수출할 업체들에게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중국 다렌시에 '졸로토이 트레우골닉(황금 삼각형)'도소매센터는 사할린의 기업인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사할린주 기업 권리보호 대표자인 안드레이 코왈렌코는 "투자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수출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 오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중국의 대형 물품 소매유통센터의 소유주와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 이곳으로 매일 약 5만 명의 소비자들이 다녀가는데 이는 우리 수출업자들이 중

국의 최종 소비자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주지사를 찾아와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구축의 협력을 요청한 가운데 '퍼시픽 피시 리소스(Pacific Fish Resources)' 유통회사의 상업 대표인 알비나 조도바는 "사할린 생산자들의 수산물은 해외에서도 확실히 수요가 많다. 우리는 베트남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3년간 수출하지 않았던 일본으로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길 원한다. 그들은 우리의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며,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 사업사절단을 구성하도록 도움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올 봄 러시아 수출센터가 아프리카로 갈 사업사절단을 조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사할린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사할린 주지사는 코르사코브 항구가 개건되면 새로운 물류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여행이 인기가 많은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관광사들의 요청에 따라 왈레리 리마렌코의 지시로 중국어 가이드 관광을 위해 사할린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번 회동에 '사할린 제과협회+'와 '그린 아그로-사할린', '안타르노예'. 디자이너이자 기업가인 예카테리나 말체와가 참석했다. 이 기업들은 사할린의 제품들(제과, 치즈, 생선제품, 의류)을 해외에 선보이기 위한 사업활동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주정부 자료에서)

2025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접수 3월 3일 시작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올해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들은 2025년 3월 3일(월)부터 대한적십자사 또는 러시아·CIS 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2025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수는 234명이다.

한편 사할린동포법 개정(2024년 1월 제정, 2024년 7월 시행)에 따라 '25년부터 동반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법으로 정한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할 수 있다.

재외동포 공공홈페이지에 올린 2025년도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신청접수 안내문에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선정기준: 신청자 수가 234명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1순위)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 (2순위)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

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준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 (3순위)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준에 직

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 (4순위) 1~3순위에 해당하지 않

는 사람

※ 그룹 내 우선순위: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기준 고령순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영주귀국을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

그리고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가 필요하다고 전해졌다.

지원사업을 맡은 재외동포청에서는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 결과 발표는 7월에 할 예정이고 선정된 사할린 한인은 11월에 영주귀국시킬 계획이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대규모 차량 행진 개최

2월 23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대규모 차량 행진을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 아침 자동차를 한 짝 장식한 행진 참가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으로 떠난 가운데 그곳에서는 주최 측이 즐거운 프로그램과 음식을 준비해놓았다.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는 모든 차량 행진 참가자들을 위해 실제 군인들의 죽과 플로브(북음밥)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특수군사작전의 장병들을 지원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장병들에게 보내는 위문편지를 남기고,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군인들의 필요를 위한 자금을 보낼 수도 있었다.

마무리로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서 차량 운전자들은 국민과 군대의 단결을 상징하는 애국적인 형태의 대열을 만들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массовый автопробег в честь Дня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В воскресенье, 23 февраля,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брались на массовый автопробег.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участники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гд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у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и угощения.

Утром автолюбители на украшенных машинах отправились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Там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одготовили настоящую солдатскую кашу и плов. Желаящие поддержать бойцов СВО могли оставить письмо солдату, передать помощь или перечислить средства на нужды солдат.

В завершении на Пушистом автомобилисты построились в патриотическую фигуру, символизирующую единство народа и армии.

<2025-사할린 얼음>, 많은 참가자들과 많은 물고기

제14회 <2025-사할린 얼음> 얼음낚시 애호가들의 축제 가 2월 22일(토) 나이바 강에서 열려 천여 명의 참가자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다. 얼음낚시에 하바롭스크 변경과 연해주, 마가단주를 비롯해 250팀들이 참가했다. 지난해와 달리 물고기들은 아주 많았다.

얼음낚시대회가 몇 단계로 진행된 가운데 우선 참가팀들은 30분간 얼음낚시 경기를 펼쳤고, 이후 가장 많이 물고기를 낚은 50팀이 선정돼 신속하게 얼음을 뚫어 구멍을 내고, 물고기를 잡는 바이애슬론 경기에 참가했다.

올해는 얼음의 두께가 100cm가 넘어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축제에서는 <나와가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요식업체들의 요리사들이 준비하는 요리 활동교실이 펼쳐져 요리사들이 갓 잡은 신선한 생선들로 창의적인 요리들을 만들었다.

전통대로 얼음 위에서 올해는 우주를 주제로 한 의상 경연대회도 열렸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어획', '가장 긴 물고기'를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상품으로 낚시용품점 상품권, 제설장비, 텐트, 보트 등 귀중한 상품들을 선사했다.

최우수 상품은 '웨보레 니와' 자동차였는데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다차(행운)'팀의 한 미하일이 받게 되었다. 여자 바이애슬론 경기에서는 48번팀의 옐레나 예멜리야노와가 우승했고, 단체경기에서는 '웨르니사쥬'팀이 우승, 길이 45cm의 나와가를 잡은 참가자가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기록의 보유자가 되었다.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5»: много участников, много рыбы

XIV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ей подледного лова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5» прошел 22 февраля на реке Найбе, собрав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На лед вышли 250 команд, в том числе гости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ев, а также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шлого года рыбы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Сначала команд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олучасовой ловле на льду. Затем 50 команд с самым большим улов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биатлоне — состязании по скоростному бурению лунок и ловле рыбы.

В этом году задачу усложнила толщина льда, превышающая 100 сантиметров.

На фестивале работали площадки с кулинарны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от шеф-поваров ресторанов, участвующих в «НаВажном фесте». Они готовили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из свежельвовленной рыбы.

Традиционно на льду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костюмов, в этом году посвященный космической тематике.

В различных номинациях — «Лучший улов», «Самая длинная рыба» и других — были разыграны цен-

ные призы: сертификаты в рыболовные магазины, снегоуборочная техника, палатки и лодки. Главный приз — автомобиль Chevrolet Niva — достался победителю биатлона Михаилу Хану из команды «Удача».

Победительницей женского биатлона стала Елена Емельянова (команда № 48).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обедила команда «Вернисаж». Рекордсменом по размеру пойманной рыбы стал участник, выловивший навагу длиной 45 см.

사할린의 시각장애인 도서관, 독특한 점자 시집 발간

대조국전쟁 80주년을 앞두고 사할린주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점자로 된 독특한 출판물을 출간한다. 이 시집에는 애국, 조국에 대한 사랑, 소비에트 국민의 용맹스러움을 주제로 시를 쓴 에두아르드 아사도브 시인의 시 30편 이상이 실린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가 전했다.

이 시집은 시각장애와 약시를 가진 독자들을 위해 점자로 맞추어져 이들 독자들에게 국내 문학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 기획은 지역의 문화생활 발전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포용성을 강화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지역 문화고문서부의 지원 덕분에 도서관은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향해가고 있다.

바로 점자 시집은 이러한 노력의 빛나는 산물이다.

2025년에 사할린주 시각장애인 특수도서관은 다양한 장르의 점자책 7권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통합된 문화적 공간의 일부가 되게 할 것이다.

Уникальный сборник стихотворений шрифтом Брайля выпустит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слепых на Сахалине

В преддверии 80-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специ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слепых выпустит уникальное издание шрифтом Брайля. В книгу войдут более 30 стихотворений поэта Эдуарда Асадова, посвященных патриотизму, любви к Родине и мужеству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8편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전국 음악 · 애국축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 갈라 공연 개최

지난 2월 2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크리스탈' 스포츠회관에서 약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러시아 팝스타, 사할린 음악가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 전 러시아 음악 ·애국 축제의 갈라 공연이 열렸다. 이 문화행사는 조국의 국경을 지키는 수호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시아에 선포된 '조국 수호자의 해'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행사였다.

공연은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 날에 전국 제1채널(페르위)에서 방영되었다.

사할린주 알레리 라마렌코 주지사는 '조국 수호자의 해'를 열며 "조국의 수호자의 날을 맞아 모든 군인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이들의 용기와 영웅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미 3년째 군 애국노래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최전방에서 군인들을 위해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의 주요 개념은 러시아 국민인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 역시 전승일을 기념합니다.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은 이제 거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영웅들이 생겼습니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참



전용사들은 조국의 국경을 지키는 손자, 증손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인들의 행운을 빌며, 승리하고 빠른 귀환을 기원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공연에 러시아 유명 가수인 샤만(SHAMAN)이 펼친 열띤 무대는 감동과 깊이가 있는 무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유명한 포트르 룬드스트렘(바이올린)의 연주, 그리고리 램스 가수의 노래, '123 폴크(부대)'그룹, '즈베로보이' 그루브 등 수많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비롯한 공연은 훌륭했고, 사할린 아티스트들의 무대 또한 멋지게 펼쳐졌다. 공연은 약 4시간 진행되었다.

관람객들은 큰 감동 속에 나라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군사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준 공연에 뜨거운 소감을 표했다.

전 러시아 음악·애국 축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의 갈라 콘서트는 사할린 주에서 세 번째로 열렸다. 이 대규모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할린 아티스트들이 돈바스를 방문했을 때 탄생했으며, 연방 차원에서 지원되었다. 이 행사의 목표는 국군 장병과 그 친척을 지원하고,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프란츠 카프카 / 오규원

-MENU-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중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체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얏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형식이 뭐가 중요할까요. 물질이 우리의 모든 이성을 사로잡은 지 이미 오래. 이렇거나 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노련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길수 있다는 건, 시인에게 영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인조차 시를 배워보겠노라 포부도 당당한 제자에게 ‘미쳤다니’, 헐!



맞아요. 세상은 야멸잡니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더 더욱.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미 다 때려치웠을 겁니다. AI 소식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쏟아지는 마당에 메타포와 뉘앙스를 뒤집었다. 쪼았다, 낫설은 단어들이 보글보글 끓기라도 하면 얼른 차가운 얼음 속에 그 문장들을 가둬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 우리는 그 분들, 시인이라 불리우는 그 분들 덕에 삶의 어떤 순간마다, 위로와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단 돈 몇 천원, 몇 만원의 값을 치렀다고 시인에게 냉정할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틀린 사회입니다. 벌어먹을 사회인 거지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인이 아닙니다만 늘 시인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돌아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시인과 시를 우러러 보는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마음이 복잡할 때 좋은 시들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들의 그 배짱들, 이렇듯 영수증 쪼가리로도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처한 이 어리석은 물질만능주의의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건, 요즘 아들 표현이 맞다면 '넵사벽'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대한민국 의사들 평균 연봉이 통계청 조사 결과 4억 원 남짓 나왔네요. 많이 벌긴 많이 버네요. 머리통 터지게 공부하고 뼈빠지게 일해서 벌었으니,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시인들은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시인들은 이 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머리통 터지게 더 하면 더 했지 공부를 게을리 하지도 않습니다. 박학다식한 분들이 있다면 '시인'이 아닐까요? 저는 감히 지식인 중의 지식인을 뽑으면 시인을 뽑는 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분들을 어떻게 예우했을까요? 아니 예우하고 있을까요? 문화 예술인 지원에 국가는 떼떽할 만큼 예산안을 편성해 주는 건 맞나요?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매번 대기업 R&D 센터 짓는 데 겁나 주거나 인턴들 뽑는데 뿌리던데, 도대체 언제쯤 화끈하게 문화예술인들에게 눈이 동그랗게 떠질 만큼의 지원액을 할당할 생각이신 건지, 나 원 참. 정신적 가치는 말이지요. 그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전세계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양 손 마디마디를 톱 톱 깎아가는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새삼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친구들이 다 떠오르네!’ 아, 어찌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열혈중년으로 돌변했나요? 오규원 시인은 이런 과부하를 또 원하지는 않으셨을 테니, 아임 쏘리,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허진원)

입수된 편지

대학생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임 야나라고 합니다. 저는 19살입니다. 블라디보스톡 국립대학교에 다니고, 전공은 교육학 영어 및 한국어 교육, 2 학년생입니다. 저는 고향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이고, 30호 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사할린 고려인이라 우리 집의 분위기는 한국 전통으로 풍부합니다.

학창시절은 가장 재미있는 때라서 '황금기'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교 생활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반은 서로가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존경 받는 선생님들은 한국어의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고, 문법과 어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배운 것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목적을 세웠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문화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대학교에서 〈별빛 가을 축제〉에 참석했는데 저희 팀이 한국 전통춤인 부채춤을 추었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쁠습니다. 새롭고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7일 국제 학생의 날이었는데, 우리의 존경받는 선생님들은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한림



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을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질문놀이로 '러시아 문화'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가끔 자원봉사도 합니다. 다양한 행사, 콘서트, 스포츠 경기 같은 모임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납니다. 우리의 대학교가 여러 가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임 야나

블라디보스톡 국립대학교, 교육학 및 언어대학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гала-концерт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21 февр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гала-концерт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объединивший на сцене Дворца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звезд российской эстрады,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зрителей. Культурное событие стало еще одним способом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щитникам рубежей Родины. Этот концерт стал знаковым событием, ведь именно он дал старт Году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объявленному в России.

Гала-концер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видели не только зрители в «Кристалле», но и вся страна. Телеверсию гала-концерта показали по Первому каналу в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23 феврал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всех воинов с Днем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за мужество и героизм. Уже три года подряд мы проводим концерт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песни. В не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артисты, которые выступают перед бойцами на передовой. Главная идея концерта – послать всем сигнал, что мы – россияне,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тмечаем 80-летие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И этот концерт мы также посвящаем юбилею. С нами осталось мало ветеранов той войны. И сейчас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герои.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гордятся своими внуками и правнуками,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рубежи Родины. Нашим воинам желаем удачи и скорейш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с Победой, – обратился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губернатор.

В концер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ригорий Лепс, SHAMAN, Наталья Качура, Сергей Бобунец, Сергей Войтенко, Руслан Осташко и группа «Наши», группа «123 полк», группа «Ронд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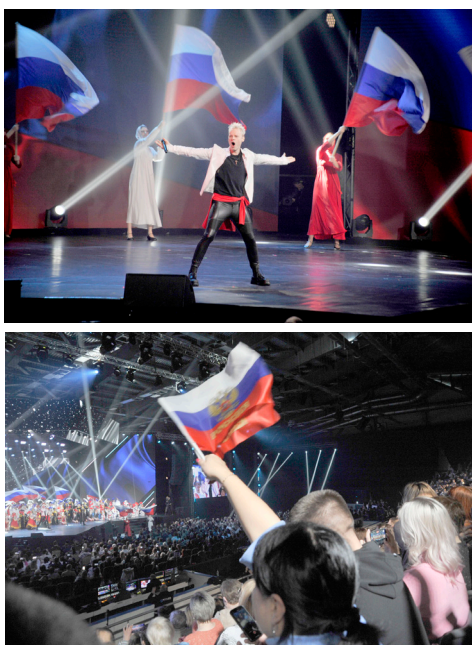
группа «7Б», группа «Звездой», Александра Круглова, Петр Лундстрем. На одной сцене с ними выступили островные артисты Георгий Зобов, Алексей Солдатов, Кристина Булатова, Виктория Малютенко, Полина Пивоварова и другие исполнители. Особый эмоциональный отклик вызвали композиции о воинской доблести: тематические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и с кадрам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бед и современными реалиями усиливали глубину песен.

Сахалинские вокалисты регулярно дают концерты для бойцов,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ВО. Виктория Малютенко побывала на Донбассе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ля концерта девушка выбрала песню композитора Георгия Зобова «Ты ушел».

В зале собрались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Николай Ефремов отметил, что в регионе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с бойцами, которые уже вернулись с лини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и с теми, кто находится на передовой. И такие концерты это только подтверждают.

- Я был в зоне СВО, вернулся в 2023 году. Мне кажется, очень важно проводить такие концерты, очень ну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ребят, потому что, когда находишься там «за ленточкой», поддержка, она обязательна. Знаю по себе, что, все что делают для бойцов здесь, откликается там. Спасибо властям,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 за то, что всё организуют для ветеранов,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для бойцов, и семей погибших, – поделился Николай Ефремов, участник СВ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



лено благодарности тем, кто защищает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демонстрируя мужество и преданность Отечеству.

- Эмоции переполняют. Гордость за страну, гордость за ребят, гордость за то, что мы сейчас настолько велики и могущественны, что нас все уважают. Я считаю, что чувство патриотизма детям надо закладывать всегда. А сейчас, когда наша страна на пути таких великих скажем изменений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такие концерты особо актуальны, – рассказал Денис Великанов, ветеран СВО.

Отметим, гала-концерт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узыкаль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проше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Иде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штаб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родилась во время поездок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на Донбасс и была поддержана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Его цель – поддержка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ВО, их близких и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Фото ЛИ Е Сика

Южная Корея отменит санкции на поставки медоборудования в Росс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шило отменить санкции на поставки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Россию с 28 феврал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торгов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нерге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едает ТАСС.

«Экспорт в Россию медоборудования в исключ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освобождается от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разрешени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эта мера вступит в силу 28 февраля.

Ведомство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ограничения будут отменены из-за компаний – экспортеров медоборудования,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зрешить поставля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вероят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оторого в качестве вооружения может быть небольшой.

ЯСИА-ДВ

Дипломаты возвращаются в Пхеньян

Сеул, 26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Посол Швейцар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иступил к своим обязанностям после вручения верительных грамот председателю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ламен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о Рён Хэ, сообщ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Накануне в Зале собраний Мансудэ Чо получил верительные грамоты от Юрга Бурри,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Швейцар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 имени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Чо и посол провели переговоры, в которых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Сон Гён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сольства Швейцарии.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в посольств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Швейцарии состоя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5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Швеция вернула своих ди-

пломатов в посольств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ав первой западной страной, сделавшей э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граничный контроль из-за COVID-19 в 2020 году привел к отъезду большин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ипломатов из страны.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льша в ноябре вновь открыла свое посольство в Пхеньяне, Швейцария стала третьей западной страной, восстановившей свое посольство в этой стране. Похоже, что все больше западных посольств готовятся возобнови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Лишь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 тесно связанных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таких как Китай, Россия, Монголия и Куба, с августа 2023 года, когда был снят пограничный контроль, работали в своих посольствах на Севере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ботают 16 иностранных посольств, в том числе посольства Бразилии, Ирана, Индии, Нигерии и Никарагуа.

Ушел из жизни Герой России Олег Цой

21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в Москве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скончался первый среди корё-сарам Герой России, заслуженный лётчик-испытатель СССР Олег Григорьевич Цой.

Гер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лег Григорьевич Цой родился 26 мая 1944 года в селе Новомихайловка Янг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Узбекистана.

В 1966 году окончил Черниговское высшее военное авиационное училище лётчиков. Служил в строевых частях ВВС (Туркестанский военный округ).

В феврале – декабре 1970 года участвовал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в Египте в составе 135-го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полка; совершил 42 боевых вылета на самолёте МиГ-21, провёл 2 воздушных боя.

В 1970-1971 годах – лётчик-инструктор Липецк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ереучивания ВВС.

С октября 1971 года по декабрь 1983 года лётчик-испытател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раснознаменно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 институте ВВС. Провё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спытания самолётов Су-15УМ (1976) и Су-25 (1980). Участвовал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спытаниях Су-17М2 и Су-17М3. Провёл ряд испыта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МиГ-21, МиГ-23, МиГ-25, Су-24 и их модификациях.

С января 1984 года по июль 1997 года лётчик-испытатель ОКБ имени П.О. Сухого (в 1984-1997 годах – начальник лётной службы ОКБ). Поднял в небо и провёл испытания Су-35 (Т-10М), ЛЛ-КС (Т-10-26), Су-39.

Провёл испытания Су-25УБ. Участвовал в испытаниях Су-24, Су-25, Су-27 и их модификациях.



В 1987-1988 годах установил 9 мировых авиационных рекордов на самолёте Су-27: в 1987 году – 1 рекорд грузоподъёмности, в 1988 году – 8 рекордов скороподъёмности.

С 1992 года полковник Олег Цой – в запасе. В 1997-2000 годах рабо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лётной службы ОАО «ОКБ Сухого».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6 апреля 1997 года за мужество и героизм,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испыта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авиационной техники, Цой Олегу Григорьевичу присвоено звание Геро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вручением знака особого отличия – медали «Золотая Звезда».

Полковник, заслуженный лётчик-испытатель СССР, мастер спорта ССС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Награждён 2 орденами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орденом «За службу Родине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СССР» 3-й степени, медалями, египетским орденом.

В 2000-х гг. Олег Цой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Почёт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https://t.me/saramkor>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глашает

2 марта 2025 г. в 15.00

в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СовременникЪ» на встречу с известным сахалинским художником ДЭ СОН ЕН.

Вас ожидают: монолог художника,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из зала (автору лучшего вопроса – приз от героя встречи), экскурсия по выставке от автора произведений.

Встреча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А.П.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Место встречи: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СовременникЪ»,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Ленина 168



О сахалинском послевоенном обществе расскажут на лекции

Лекция «Послевоенное сахалинское общество как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й 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феномен»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исследованию уник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динамик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Лектором выступит Юлия Дин,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28 февраля в 15:00.

В ходе лекции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о, как история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формированию на островах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с богатым культурным разнообразием. Будут обсуждены ключевые факторы интеграции различных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и влияние каждого компонент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Лекция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ий ЭтноЛекторий» –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площадки Российск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музея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завершил слушания по импичменту Юн Сок Ёлю

25 феврал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КС) провёл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11-е слушание по делу об импичменте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ю в связи с объявлением и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лушание продолжалось около восьми часов. Сначала суд изучал вновь выявленн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за и против импичмент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сторонами истца и ответчика, затем были заслушаны их выступления, по два часа каждое. В 22:14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суда Мун Хён Бэ объявил о завершении слушаний. Он сообщил, что судьи приступают к подготовке решения. Этот процесс займёт 2-3 недели, и решение будет объявлено примерно в середине марта. Если суд поддержит импичмент, Юн Сок Ёль будет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странён от должности, и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должны пройти внеочеред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Если импичмент будет отклонён, он продолжит исполнени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ивлечение в РК иностранцев поможет росту рождаемости

Настало время перейти к комплексному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которую нужно стимулир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с помощью денежных выплат молодым семьям, но и привлекая в страну иностранцев.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ю населения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страны Чу Хён Хван, выступая 18 февраля на форуме по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проведённом совместно с Советом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гуманитарным и социаль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и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н отметил, что РК уже являетс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обществом, та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ней проживали 2 млн 65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Это более 5% населе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у нужно работать над созданием 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ой сред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отметил Чу Хён Хван. О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эффективная им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танет ключев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ля выхода из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ызванного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ью и стар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ведены электронные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карты

Начиная с 24 февраля,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теперь могут заполнить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карты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или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за три дня до въезда в Р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овала система бумажных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карт, которые заполнялись вручную, что замедляло работу сотрудников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вынужденных сверять данные карты с данными паспорта.

С внедрением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ы у них появится заблаговременный доступ к данным иностранцев, въезжающих в страну.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бумажные и электронные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карты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ианист Пак Чин Хён победил на конкурсе в Марокк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Пак Чин Хён стал лауреатом 21-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Марокканского филарм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Он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и получил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Второй приз у китайского музыканта Лю Юнцю, а третий - у Тани Акито из Японии.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 2001 года. В нём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музыкан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6 до 30 лет. Пак Чин Хён дебютировал в 2009 году на концерте молодых талантов, а в 2016 году стал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ианистом, одержавшим побед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узык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Пражская весна».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а в кино в РК в 2024 году 9.702 воны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18 февраля Корейским советом по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а в кино, рассчитанная путём деления общей выручки от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н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состави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9.702 воны (6,75 доллара). Это на 3,8% дешевл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снижение стоимости билетов связано с уменьш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специальных показов с более высокой стоимостью и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зрителей, использующих различные купон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аждый южнокореец посетил кинотеатр в среднем 2,4 раза, и РК занимает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восьм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работали 570 кинотеатров. Это на 3 кинотеатра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количество экранов сократилось на 2,2%, а мест в кинотеатрах - 5,6%.

RKI

В Сеуле прошел митинг в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и

Утром в понедельник 24 февраля в центре Сеула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зданием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музея искусства прошел митинг в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и. На митинг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усскоязычной диаспоры в Корее, сотрудников посольства РФ, торгпредства и иных российских госучреждений. Акция была приурочена к третьей годовщине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Посо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отметил, что день 24 февраля войдет в историю как "символ окончания одн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и перехода к справедливой многополярной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Дипломат указал также на символизм того факта, что вчера Россия праздновала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и напомнил, что наша Родина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ходила через сложные времена, подвергаясь угрозам и давлению со стороны западных держав. Посол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Ф всячески пыталась остановить тлевший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методами, избегая кровопролития, однако Запад использовал мирную передышку от Минских соглашений для вооружения Киева, чтобы решить вопрос Донбасса военным путем, параллельно создавая "неприемлемые угрозы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и россиян.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Россия для защиты сво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йских людей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 сказал посол.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глубок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оссийским солдатам и офицерам,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нашу Родину, обеспечивая для нас и наших потомков мир. Собравшиеся подчеркнули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Россия достигнет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и отстоит свои ценности.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троекратным "ура", прослушиванием известных советских песен "С чего начинается Родина" и "Вечный огонь" ("От героев былых времен") из кинофильма "Офицер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КНДР пообещала ответить на военную активность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недавние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на развертыв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а В-1В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Пхеньяне заявили, что подобные шаг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рямую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на которую она готова ответить "адекватны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тили, что КНДР впервые официально прямо упомяну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рампа". Ране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збегала имя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в своих критических высказываниях.

"Мы продолжим ответственные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держивание и контроль над нестабильной ситуацией с безопасностью в регион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говорится в комментарии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Центральным телеграфным агентством Кореи (ЦТАК) 22 февраля.

Пхеньян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оенная активность США усилилась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оенные провокации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ов, угрожающ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КНДР, приобрели еще более крайний характер",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же раскритиковала предстоящи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учения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С начала года США уж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провокационные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в регионе, а в марте вместе с Южной Кореей намерены провести маневры "Freedom Shield", увеличив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й на

сем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Это приведет к предельному обостр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 утвержд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КНДР.

Пхеньян при этом назвал наращивание своего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ынужденной мерой. "Наши ядерны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являются средством справедливой обороны для защи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х ускоренное развитие продиктовано реальной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 заявляет КНДР.

В Пхеньяне также осудили военные планы США в регионе, отметив, что Вашингтон активно отрабатывает сценарии примен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Авантюристская во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США и все более откровенные попытки враждебных сил развязать воору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ясно доказывают, почему мы укрепляем свой во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опираясь на ядер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Это оправданный и неизбежный выбор", -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анализируя заявление КНДР, отметили один новый момент в подходе Пхеньяна. За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КНДР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резко высказывалась по поводу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однако в этот раз впервые напрямую упомяну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ю Трампа. В этой связи высказывается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это мож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дальнейшем ужесточении КНДР риторики в адрес Вашингто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С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ждут сложности в случа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ынок России

На фоне ускоряющихся переговоров о возмож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конфликта в Украине и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смягчения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ряд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чали анализировать перспективы возобновления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Согласно публикациям в СМИ Кореи, которые ссылаются на источники в бизнес-круг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несколько крупных корпораций ведут внутрен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о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возвращения, оценивая возможные выгоды и существующие риски.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возросший интерес, компани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серьез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включая усилившуюся конкуренцию со стороны кита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в вопросе санкций и возможные сложности с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Почему компа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вновь рассматривают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возобновления интерес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к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измен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Активизация переговоров о возмож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и смягчение риторики ряда западных стра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ривели к обсуждению вероятного ослабления санкций. Хотя официальных решений пока нет, компани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сценарии, при которых частичное или полное сня-

тие торговых ограничений может позволить им вернутьс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Кроме того, несмотря на западные санкции,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устойчивость, 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сохраняет высокий спрос на каче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Впрочем, некоторым компаниям надо торопиться, так как сроки действия некоторых соглашений истекают в этом году.

Автомобильный сектор: Hyundai и Kia анализируют перспективы, но должны поторопиться

Автомобильные компании РК однозначно желали бы вернуть утраченные в России свои некогда сильные позиции. Так, Hyundai Motor начала работу в России в 2007 году, создав местн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а уже в 2010 году запустила завод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2011 году стартовало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россий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выпускало адаптированные под рынок модели Solaris, экспортные версии Creta, а также Kia Rio. В 2020 году Hyundai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иобрела завод General Motors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увеличив сво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до 234 000 автомобилей в год к 2021 году. В тот же период Kia и Hyundai стали самыми продаваемы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брендами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6)

С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ждут сложности в случа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ынок Росси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5)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также учитывают, что их прежние российские активы пока не утратили своей ценности. Так, Hyundai Motor Group в 2023 году продала свой завод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местной компании "Арт-Финанс" за символическую сумму в 10 000 рублей (на тот момент 140 000 вон), при этом сохранив за собой право обратного выкупа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Этот шаг дает Hyundai возможность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юридических барьеров восстанов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в случае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изменения обстановки. Правда тут есть нюанс, что условие buy-back (обратный выкуп) действует два года, то есть "окно возможностей" закроется к концу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компании же отметил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решения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оссии не принято, однако мы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м за развитием ситуации и оцениваем возможные варианты".

Однако даже в случае возвращения Hyundai и Kia столкнутся с серьезными вызовами. Их место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заняли китайские бренды.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Автостат", в 2023 году 8 из 10 самых продаваемы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марок в России были китайскими, включая Chery, Haval и Geely. Это делает возможное возвращение Hyundai и Kia на рынок гораздо более сложным, чем раньше.

Электроника: Samsung и LG теряют позиции, но хотели бы их вернуть

До 2022 года Samsung и LG также занимали прочные позиции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и электроники. Samsung Electronics традиционно входил в число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брендов в категории смартфонов, телевизоров 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а LG уверенно удерживал долю в сегменте холодильников, стиральных машин и другой электрон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инвестирова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в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логистику, а их продукция пользовалась высоким спросом.

Однако после начала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и введения санкций компани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приостановить поставки и производство. Samsung остановил работу своего завода в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арте 2022 года, а LG заморозил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в Люберцах. В результате рынок начал стремительно заполняться китайскими и турецкими брендами. В 2023 году более 40% российского рынка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контролировалось компаниями из Китая, Турции и Белоруссии,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осложняет возможное возвращ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 сло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отрасли, "после начала конфликта на Украине производств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России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лось, а освободившиеся позиции заняли китайские бренды. Нам остается наблюдать за развитием событий, но если санкции будут сняты,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появится шанс восстановить свои позиции на рынке."

Тем не менее, даже в случае ослабления санкций Samsung и LG столкнутся с серьезными вызовами. Помимо конкуренции со стороны новых игроков, компаниям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с логистикой и поставками комплектующих, которые ранее поступали через европейские каналы.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потребует значите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й, а также уверенности в стаби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рынка.

Судостроение: возможно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контрактов на LNG-танкер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пострадали от санкций не меньше других секторов. Samsung Heavy Industries, одна из крупнейших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х корпораций Южной Кореи, потеряла контракт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10 ледокольных танкеров и 7 нефтеналивных танкеров для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Арктик СПГ-2". До

санкций Южная Корея обеспечивала более 90% мир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ких судов, и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рассчитывала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Samsung Heavy Industries и Hyundai Heavy Industries.

Однако после введения санкций и отказа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от исполнения контрактов Россия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иск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пу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удов,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Китай. Тем не менее, китайские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мпании пока не обладают достаточ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ледокольных танкеров, что может дать Южной Корее шанс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утраченных контрактов в случае снятия санкций.

Препятствия есть, но шанс терять не хочется

Как отмечают местные эксперты, оценивая перспективы 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омпании РК столкнутся с рядом сложностей. Конкуренция со стороны китайских и турец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усилилась, что делает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ынок гораздо более трудоемким. Санционные риски остаю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ми, даже если ограничения будут частично ослаблены.

Логис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и разрушенные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потребуют значите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их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Финансовая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асчеты также создаю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юридическая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по вопросу возврата активов и регистрации новых компаний может замедлить процесс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Тем не менее, как призн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и СМИ Южной Кореи, "шевеление" концернов РК по поводу возвращения в Россию однозначно началось. Корейцы в свое время очень неохотно покидали рынок РФ, понимая, что вернуться будет не так просто, а потому хотели 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открывающиеся возможности, так как позже будет еще сложне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Сахалин впервые принял совещание Минсельхоза России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и регионами

Развитие отрасл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и готовность аграрие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к весенним полевым работам обсуд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ещание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ДФО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Андрей Разин.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 выездные совещания в регионах, и впервые мест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роведение таких окружных совещаний и их формат стали эффективным механизмом, позволяющим дойти до проблем каждого субъекта и приня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в силу специфики свое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и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являе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производителем продукци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егионов округа растениеводческая отрасль является драйвером как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ак и экономики в целом. Отдельно отмечу, чт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находится в зоне вним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подчеркнул Андрей Разин.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годня занимает второе место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овощей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и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цвет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ДФ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актически достиг показателя Доктрины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 картофелю в 95%. Область также динамично движется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амо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по овощам борщевой группы. Развито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нужд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затронули и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к весенним полевым работам. В целом агра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отовы к проведению посевной и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ы необходимым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ми ресурс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вная кампания начинается со второй декады мая. Сейчас аграрии активно закупают минеральные удобр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планом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нести на поля более 5 тысяч тонн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Это на 40% больше, чем в 2024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иобрести 26,8 тонны средств защиты, 1,2 тонны семян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и 700 тонн семян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Для обновления и пополнения семенного фонда картофеля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намерены закупить 975 тонн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высших репродукций. Заключены договоры с крупными семеновод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Ураль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Партии элитного картофеля начнут поступать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к началу посевных работ. А пока хозяйства ведут переборку собственного семенного фонда картофеля, который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7 тысяч тонн. Кроме того, заранее проводится техниче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и ремонт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мерены возродить региональное семеноводство картофел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хозяйств посадочным материалом высокоурожайны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сортов.

– Для развит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семеноводств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ООО «НПП СеДеК «Домодедово». В 2024 году в ФГБНУ СахНИИСХ-филиал ВИР начато проведение агро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испытания шести сортов картофеля СеДеК в услов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продолжится и в этом году. В двух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при методическом сопровождении СеДеК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адка миникубней как первого этап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итных семян,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В заключение совещания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Андрей Разин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егионов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доведения средств господдержки до получателей, соблюдения севооборота и структуры посевных площадей. Также он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выполнения плана закупки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приобретен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и соблюдения мер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делегация Минсельхоза РФ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аграрии посетили крупнейше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не толь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Руководство совхоза показало гостям теплицы с томатами, огурцами, цветами и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о о производстве и технологиях.

– Сегодня мы осмотрели теплицы, где выращивают продукцию высокого качества. На самом деле, технологии находятся на очень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То, что мы сегодня видели, вызывает глубокое уважение и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аграриям и руководству региона за ту работу, что проводится по поддержке овощеводства, – сказал Роман Некрасов,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механизации, химизации и защиты раст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Отметим, в 2025 году посевная площадь в ДФО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на уровне 2,3 млн га, что на 199 тысяч га больше прошлогодних значений. Будут увеличены посевные площади 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бщая посевная площадь составит 27,4 тысяч га, что на 4% больше 2024 года.

207 ветеранов СВО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для участия в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За первые 5 дней после старта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бойцов СВО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207 ветеранов С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на платформ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екте могут как демобилизованные бойцы, так и действующ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Александр Богатыре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ся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Мужчина отправился в зону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операции добровольцем.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участник СВО уволился из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и устроился в Троицкий детский дом социальным педагогом. О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Александр узнал от своего куратора и решил отправить документы, чтобы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 Я хоч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потому что мне не безразлична судьба моего региона. Хоч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жизни нашей области и города.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шанс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ть мой опыт, научиться управленческим подходам. Период нахождения на передовой научил меня не отступать перед сложностями, и теперь я хочу направить эту способность на мирные цели, – отметил ветеран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ВО считаю важным, потому что мы защищаем свою Родину и семьи. Если бы мы не предприняли этот шаг, сейчас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велись б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Мы поступили правильно, ответили на призыв нашего командующего и выполнили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Отметим,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своят базовые принципы работ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ах – занятия пройдут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хГУ) и Школ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Кроме тог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педагогов и начать преподавать в школах «Военную подготовку». Участники спецоперации, имеющие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лучат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помощь от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и карьерн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страция продлится до 24 марта, а стар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модулей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23 июня 2024 года. Подробности –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оекта герои65.рф.

Сахалинцы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кции по обливанию холодной водой

13-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портивно-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кция «Быть здоровым – это модно», посвященная 80-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более 150 любителей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 Это уникальное событие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Мы организуем сотни спортивных и физ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имер, зимой катаемся на лыжах или летом бегаем марафоны. Но обливания холодной водой – это что-то особенное. А если учесть тот факт, что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этой акции участву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а также жители Нигерии, Чили, Замбии, Аргентины, Испан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 это придает событию особенный колорит. Я сам с радостью присоединяюсь к обливанию и почувствую себя частью большой спортивной семь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нислав Тюрин.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и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телемост с другими городами и странам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участники могли видеть друг друга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Пресс-служба ПСО)

이상덕 동포청장 "경북 기업,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해달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5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에 게 4월 17~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한상 경제권’의 비전을 제시해 기존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넘어 무역·투자·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북 소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동포청이 추진하는 국내 체류 동포 맞춤형 사업 계

획을 설명하면서 도내 거주하는 동포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포청에서 실시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동포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경북 도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과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월 21일부터 ‘재외동포청-병무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포청과 병무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

(G4K)”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될 뿐만 아니라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 이행자들의 편의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사]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위촉 2020년 제1회 최재형 상 단체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이 (사)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으로 위촉됐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는 2월 25일 제11차 정기총회에서 박종범 회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종범 회장은 2020년 제1회 최재형 상 단체상(영산그룹)을 수상한 바 있다. 박 회장과 최재형기념사업회와의 인연은 지난 2020년 초 최재형의 대표후손인 손자 고 최 발렌틴이 모스크바에서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회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후원금 1만 불을 들고 모스크바로 달려왔고, 국내에서 모금한 성금을 갖고 모스크바로 갔던 문영숙 이사장과 처음 만났다.

박 회장은 그 후 최 발렌틴이 사망하자 국가보훈부에서 받던 보상금이 끊겨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게 된 상황을 듣고 고 최 발렌틴의 아들 최 포트르(최재형의 증손자)를 모스크바에 있는 본인의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었다. 또 우수리스크 최재형민족학교가 운영난에 처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었다.

박종범 회장은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기아자동차상사의 오스트리아 법인장을 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아 1999년 오스트리아에 영산무역을 설립하고, 2004년 영산글로벌넷을 한국에 설립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에 나섰다. 현재 영산그룹은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을 포함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3개 대륙, 20개국에 총 30여 개의 법인지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박 회장의 활동과 기업정신을 높이 사서 제1회 최재형 상 단체상을 수여했고, 최재형기념사업회 11회 정기총회에서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하게 됐다고 기념사업회는 설명했다.

박종범 신임 명예이사장은 취임사에서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최재형 선생의 위대한 폐치가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박 회장에 대해 “이 시대의 최재형이라 할 만한



분”이라면서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기업들을 아우르는 월드옥타 22대 회장을 맡아 범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체력과 열정으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박종범 회장님을 우리 사업회 명예이사장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최재형 선생의 위대한 폐치가 정신을 세계에 알리려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최재형 선생은 1860년대 초에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간 한인 1세대 디아스포라로 해외에서 최초로 성공한 한인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월드 옥타 회원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한국정치학회, 재외동포정책 연구·개발 위해 협력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27일(목)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상덕 청장과 김범수 회장(서울대학교 교수), 김동수 연구이사(부경대 교수), 홍석훈 총무이사(창원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재외동포정책 연구·개발 및

자문 ▲재외동포정책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정책 관련 학술 세미나, 포럼 등의 공동 주최 등이 담겨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정치학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정보·자료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수 회장(한국정치학회)은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국가

적 과제에 있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한국정치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재외동포와 관련된 학술 및 정책연구의 토대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하고, “700만 재외동포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정치학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못 부정의 세계

우리말에서 부정

을 나타내는 부사로 는 크게 ‘못’과 ‘안’을 들 수 있습니다. 못은 불가능을 나타내고 안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못 가.’와 ‘안 가.’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표현에 사정이 있어 갈 수 없다는 말과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느껴집니다. 못과 안의 구별이 아주 어려운 부사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못’에는 아쉬운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어쩔 수 없다는 단념의 생각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못 간다는 말에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못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합니다. 못이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못이라는 부정도 다양한 삶을 반영합니다.

못 먹는다는 말에도 얼마나 많은 사정이 있겠습니까. 몸에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경우라면 못 먹는다는 말이 서글퍼질 겁니다. 한편 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가엽습니다. 물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 경우도 있죠.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못’의 세계입니다. 못의 세계가 참 가지가지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못 산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쓰는 말이죠. 배가 고파서, 힘이 들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사랑하는 이가 날 버려서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못 살 일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살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못 살겠다는 말이 투정처럼 비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하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못 산다는 말에는 웃음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못 산다고 하면서 잘 사는 모습입니다. 이때 못 말린다는 말도 함께 합니다 못 말리는 사람과 웃으며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한편 못 산다는 말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 거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보세요. 살고 싶고, 살기를 바라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끝이 정해져 있기에 모두 못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못 사는 게 그야말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다’의 반대말이 ‘죽다’이기에 못 산다는 말이 죽는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 뜻을 외면하고 삽니다.

그런데 못산다는 말이 변질되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즉 경제적 궁핍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사는 것은 부유함으로 못사는 것은 가난함으로 나타납니다. 가난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나쁩니다. 가난해서 사랑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세상은 불행한 곳입니다

저는 가진 것 없이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다독이며 토닥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삶이 당연하고, 없다고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하기에 서로 돌보고 그래서 살맛나는 세상이기 바랍니다. 못살아도 잘 사는 세상이 좋은 곳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난이나 부유함을 의미할 때는 못과 잘을 붙여 씁니다. 끝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남을 못살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큰일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불행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Материалы адаптируют для слепых и слабовидящих читателей с помощью рельефно-точечного шрифта Брайля. Это откроет им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знакомства с лучшими образцам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роект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региона и содей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инклюзии.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библиотека стремится сделать литературу доступной для всех, включая людей с нарушениями зрения, и это яркий пример таких усилий.

Всего в 2025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специальная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слепых планирует выпустить семь книг разных жанров. Эта работа расширит возможности и позволит каждому жителю региона стать частью еди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사할린 주민들의 연봉 거의 50%가 대출상환에 먹혀

2025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에서 현 은행 상대 국민 대출의 규모가 34조9천억 루블리에 달했다. 지난해 12개월 동안 이 대출금은 5.5%(1조 8000억 루블리) 증가했다.

사할린주에서는 은행 대상 1인당 평균 대출상환금은 62만2천 루블리였고, 지난해에는 60만 루블리에 못미쳤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지역들 중에서 사할린주는 대출부채에 따라 11위를 차지해 평균 1인당 대출 부채는 평균 연봉의 46.4%에 해당된다. 극동연방관구에서 순위로는 사할린 뒤로 추코트카, 콜리마, 캄차트카가 올라있고, 추코트카 주민의 경우 평균 1인당 대출상환금이 연봉의 3분의 1을 먹어치우고 있으며, 마가단주와 캄차트카 변경은 42% 이상이 먹고 있다. 극동연방관구에서 부랴티야는 1인당 평균 은행 대출부채가 연봉의 약 70%에 달한다.

Почти 50% годовой зарплаты "съедают" долги по кредитам у сахалинцев

В России объем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кредитам населения перед банкам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25 года составил 34,9

трлн рублей, а за последние 12 месяцев он вырос на 5,5%, или на 1,8 тр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няя задолженность перед банками на человека составляет 622 тысячи рублей, 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 чуть менее 600 тысяч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РИА Новости.

Сред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11 место по наименьшей закредитова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 46,4% от средней годовой зарплаты составляет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лг по кредитам. Что касается ДФО, после Сахалина в рейтинге идут Чукотка, Колыма и Камчатка. У чукотцев среднедушевой кредитный долг "съедает" почти треть годовой зарплаты, в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амчатском крае — более 42%. Самый закредитованный субъект ДФО — Бурятия: там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лг составляет почти 70% от годовой зарплаты.

<고르니 워즈두흐>에서 상품을 건 도전게임 진행

2월 23일(일)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구역에서 단지 이용객들을 위한 도전게임이 진행되어 게임 참가자들에게 상품 모양이 있는 숨겨진 카드를 찾도록 제안하고, 찾은 카드를 실제 상품과 교환할 수 있게 했다. 도전게임은 낮12시에 시작되었고, 주어진 상품들로 사할린과 고르니 워즈두흐의 상징을 기념품으로 만든 장갑, 열쇠고리, 엽서, 컵받침, 양말, 발라클라바(두건형 쓰개), 모자,여권 커버, '사흐투리스트65'가 제공하는 계낱시/물고기낱시 이용권이 제공되었다. 찾은 카드를 상품으로 교환하는 행사는 관리안내소에서 진행됐다.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прошел квест с призами

23 февра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ошел квест для гостей комплекса.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лагают найти спрятанные карточки с изображениями призов и обменять их на реальные подарки.

Квест стартовал в 12:00. Среди призов — сувенирная продукция с символикой Сахалина 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варежки, брелоки, открытки, подстаканники, носки, балаклава, шапки, обложки на паспорт, а также сертификат на крабалку/рыбалку от компании «СахТурист65».

Обмен карточек на призы производился у администратора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тойк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정해성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문



사할린주의 발전과 사할린 동포사회에 큰 기여를 해오신 정해성 선생님께 80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설 분야의 전기기술전문가로 사업을 해오신 정해성 선생님은 늘 동포사회를 도와오셨습니다. 수십년간 사할린주한인협회를 후원하시고 최근에는 '가가린'호텔을 운영하시면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노인정 어르신들을 돕고 계십니다.

선생님, 장기간 새고려신문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댁에 행운과 부유함과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녀,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면서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